

요약

2024년 유럽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 중위수는 210%를 넘어, 대부분이 감독기준의 두 배 이상 수준을 유지함. 가용자본은 기본자본 중심의 안정적 구조를 보였으며, 요구자본은 생명보험회사는 시장위험의, 손해보험회사는 손해위험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음. 한편 보험회사들은 자체 목표 비율에 따라 자본을 능동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손해보험회사는 재보험을 활용해 요구자본을 줄이며 자본효율성을 높이고 있음

- 2024년 유럽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은 국가별 편차는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견조한 수준을 유지함)
 - 2024년 유럽 보험시장은 총자산 약 10.1조 유로, 총수입보험료 약 1.5조 유로로 미국과 비슷한 규모이며, 2016년 Solvency II 지급여력제도를 시행함
 - 유럽보험연금감독청(EIOPA)에 따르면 2024년 말 유럽경제지역(EEA) 보험회사(약 2,400개)의 지급여력비율 중위수는 210%를 넘었으며, 생명보험회사 230%, 복합보험회사²⁾ 216%, 손해보험회사 214% 수준으로 각각 집계됨
 - 전체 조사 대상 중 100% 미만을 기록한 회사는 손해보험회사 1개에 불과함
 - 프랑스 재보험회사 스코어(SCOR)의 분석에서도 지급여력비율의 하위 25%는 172%, 중위수 220%, 상위 75% 296%로 나타나 대부분 보험회사가 법정요구자본의 두 배 수준을 유지함
 - 다만 독일(△31.9%p), 체코(△27.0%p), 에스토니아(△19.4%p) 등 일부 국가는 전년 대비 지급여력비율이 하락하며 국가 간 자본건전성 격차가 다소 확대됨
 - 이처럼 일부 국가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유럽 보험산업은 2024년에 금리 변동과 자산가치 조정에도 전반적으로 견조한 자본기반을 유지하고 있음
- 유럽 보험회사의 가용자본은 기본자본 비중이 높고, 요구자본의 구성은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의 위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되어 있음
 - SCOR에 따르면 가용자본의 약 91%가 기본자본(Tier 1)으로 구성되어 있고, 보완자본(Tier 2)은 7%, 제한자본(Tier 3)은 1% 수준으로 전체의 10% 미만을 차지함³⁾
 - 2024년 고금리 기조에 후순위채 중심의 Tier 2 자본 발행비용이 높아 유럽 보험회사들은 이익잉여금 유보 중심의 Tier 1 자본을 유지·확대하는 경향을 보였음

1) 본고는 EIOPA(2025. 6. 19.), "Financial Stability Report June 2025" 및 SCOR(2025. 9. 3.), "Solvency & Reinsurance in Europe"를 참조하여 작성함

2) 복합보험회사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함께 인가받아 운영하는 회사로, Solvency II에서는 두 사업의 위험모듈을 결합해 지급여력비율을 산출함

3) Solvency II는 가용자본을 Tier 1·2·3으로 구분하며, 요구자본 산정 시 Tier 1은 50% 이상, Tier 3은 15% 이하, Tier 2+3은 50% 이하로 제한됨

- 요구자본⁴⁾ 구성 측면에서 생명보험회사는 시장위험(176%)⁵⁾의 비중이 가장 크고 거래상대방위험(103%)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손해보험회사는 손해보험위험(65%)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시장위험(47%)이 그 뒤를 이었음
- 이는 생명보험회사는 금리와 자산가치 변동에 따른 시장위험에, 손해보험회사는 보험위험과 순보험료(재보험 조정 후 기준) 규모에 요구자본이 크게 영향을 받음을 의미함

○ 한편, 유럽 보험회사는 내부 목표 비율에 따라 지급여력 수준을 능동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SCOR에 따르면, 2023~2024년 사이 분석 대상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은 약 211%에서 수렴하는 경향을 보였음
 - 지급여력이 높은 보험회사는 배당 확대나 위험자산 확충 등을 통해 비율을 낮추는 반면, 지급여력이 낮은 보험회사는 자본확충이나 재보험 확대를 통해 비율을 회복하는 움직임을 보였음
- 이러한 현상은 유럽 보험회사가 감독기준 외에도 자체 내부 지급여력 목표를 바탕으로 시장환경과 수익구조에 맞게 자본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임

○ 손해보험회사는 높은 손해보험위험에 대응하고 지급여력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보험을 자본관리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SCOR에 따르면 손해보험회사의 평균 재보험 출재율은 총수입보험료 대비 약 25% 수준이며, 화재·기타재산보험(34%), 일반배상책임보험(36%), 해상·항공·운송보험(50%), 신용·보증보험(49%) 등 주요 종목에서는 평균을 상회하는 출재율을 보임
- 특히 비례재보험은 Solvency II 표준모형에서 요구자본 감축 효과가 직접 반영되어 지급여력비율 관리에 유용한 수단으로 평가됨⁶⁾
 - Solvency II에서는 손해보험위험을 순보험료와 순준비금에 규제 계수를 적용해 산출하기 때문에, 비례재보험 사용 시 재보험 출재분만큼 순보험료와 순준비금이 감소하여 보험위험 요구자본이 기계적으로 줄어드는 즉각적인 자본감축 효과가 나타남
- 이처럼 손해보험회사는 재보험을 통해 대형 사고 발생 시 부담을 분산하는 본래 목적에 더해, 재보험 출재를 통해 요구자본을 조정함으로써 지급여력비율의 과도한 변동을 완화하고 자본효율성을 높이는 경향을 보임
 - 재보험은 제도상 보험위험을 완화하는 Pillar 2의 위험관리 수단으로 분류되지만, 재보험 비중이 커지면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보험위험이 줄어들어 Pillar 1의 보험위험 요구자본에도 영향이 발생하는 만큼 자본관리 측면의 기능도 나타남

4) Solvency II의 요구자본은 시장위험, 신용·거래상대방위험, 생명·손해보험위험, 운영위험 등을 표준모형으로 산출한 뒤 합산하여 계산됨. 생명보험회사는 금리·주가 변동에 민감해 시장위험 비중이 크고, 손해보험회사는 사고율·청구 변동성이 커 손해보험위험이 가장 큰 요인을 이룸

5) 본문에 제시된 위험모듈별 백분율은 SCOR가 표준모형을 적용하는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분산효과 적용 전의 위험모듈별 요구자본을 최종 요구자본 대비 비율로 환산한 값임. 이는 개별 위험액의 기여도를 보여주는 지표이며, 상관관계 조정을 거친 최종 요구자본과는 차이가 있음

6) 비례재보험은 원수보험회사가 인수한 보험료와 사고손해를 일정 비율로 재보험회사에 이전하는 방식이며, 표준모형은 Solvency II의 요구자본의 기본 산출방식으로, 주요 위험요소를 사전에 정한 규제 계수와 공식으로 산출함